한국사회복지학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7, No. 1, 2015. 2, pp. 83-107

성인기 자아존중감 변화와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김 혜 미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 혜 진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장 혜 림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요 약]

사회복지 실천현장과 학술 연구 분야에서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자아존중감과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대한 국내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의 변화과정에 주목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정하는데 목적을 두며, 특히 개인별 특성 요인과 더불어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개인내 변화요인의 영향을 동시에 추정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의 변화 과정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분석 대상을 연령층으로 구분하여 영향 요인들의 효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생애주기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변화 과정을 조망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8차 자료 중 19세 이상 성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다수준 성장 모델을 적용한 결과, 성별, 교육수준과 같은 고정된 개인별 특성 뿐 아니라 가족, 사회적 관계, 고용 및 혼인상태 등 변화 요인들이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이 연령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이 확인되었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성별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더불어 심리사회적 상태 등의 복합적 산물이며, 상태적 특성을 가진 자기개념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상황적 욕구에 대한 적합한 대응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향상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주제어: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변화, 생애주기, 시변 변수, 다수준 성장 모델

+ 주저자
++ 교신저자

1. 연구의 목적

자아존중감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스스로에 대해 내리는 평가로 자신에 대한 가치, 수용 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Zimmerman et al., 1997). 자아존중감은 청소년 비행, 성인기 우울과 불안, 대인관계와 적응, 신체적 건강, 음주행위 및 삶의 만족도 등 개인의 심리·사회적 측면을 포괄하는 삶의 전반적 영역의 기능과 연관된 중요한 내적 자원으로 작동한다(정익중, 2007).

자아존중감은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기에 걸쳐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rikson, 1968). 그렇다면 아동·청소년기와 같은 성장기에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불변적 특성을 가지는가? 일부 연구자는 한 번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대부분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인생에 걸쳐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자아존중감의 연속성을 주장한다(Wylie, 1979). 반면, 자아존중감은 사회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사건과 경험, 변화에 맞물려 변화되는 것이라는 변동가설 역시 제기되어 왔다(Trzesniewski et al., 2004). 예로, Epstein(1979)은 개인은 각자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매김에 있어 전환점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들은 궁극적으로 자기 개념 형성 및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생애주기별로 자아존중감의 변화 패턴이 상이하다는 연구 결과들은(Robins et al., 2002; Robins and Trzesniewski, 2005; Orth and Robins, 2013) 자아존중감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바, 본 연구는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변화 기제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자아존중감과 같은 자기 개념에 영향을 주는 경험은 무엇인가? 개인의 생애과정 중 어떠한 변화가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야기하는가? 자아존중감의 형성기인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에는 자아존중감이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일 것인가? 자아존중감이 건강하게 유지되거나 향상된다면 이에 기여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반대로 자아존중감이 감소된다면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안타깝게도 이런 질문에 충분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선행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자아존중감 형성에 기여하는 요인을 규명하는 국내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허만세 외(2013)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재까지 축적된 자아존중감 관련 연구는 자아존중감을 다른 심리사회 적응 변수의 예측변인 혹은 매개변인으로 활용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궤적과 영향요인을 살펴본 정익중(2007)의 연구와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상호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최희철(2011), 김선숙과 최희철(2013)의 연구가 있으나 이들은 자아존중감의 궤적보다는 두 변인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김혜미(2014)의 연구는 성인의 자아존중감 궤적과 우울의 궤적을 동시에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정익중(2007)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모두 고정된 특성의 시불변 변수(time-invarying variables)로 취급하여 실제 삶의 영역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변인들이 자아존중감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개입 영역은 성별과 같은 시불변적인 요인에 의한 부분보다는 시변 즉, 변화가 가능한 요인에 집중됨을 고

려할 때,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시변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해내는 것은 자아존중감에 대한 이론적 접근 뿐 아니라 실천적 함의를 도출해내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예측된다.

본 연구는 이런 국내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자아존중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된 연구로, 구체적으로 청년기-중년기-노년기에 걸쳐 한국인의 자아존중감이 어떻게 변하는지 탐색하고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성인의 자아존중감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둘째, 성인기 자아존중감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무엇인가? 셋째, 자아존중감의 궤적과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생애주기별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

2. 선행연구 고찰

1) 생애주기별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한 개인의 발달과 성격에 영향을 미치면서 인간행동의 중요한 동기이자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학자들이 정의하는 개념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의 성취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혹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James(1892)에 의해 최초로 설명된 자아존중감은 과거 자신의 성취를 비교했을 때, 현재 자신의 성취수준으로 정의된다. 자아존중감을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인 Rosenberg(1979)는 자아존중감을 개인이 자신에게 갖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판단으로 본다. 반면 Lazarus와 Folkman(1984)은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키는 심리내적 자원으로 자아존중감을 보고 있고 개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켜 줌을 강조하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어느 시기에 갑자기 발현되는 특성이 아니기에 생애주기마다 중요한 특성을 가지며 의미 있는 체계에 의한 영향도 다르게 받는다. Orth와 동료들(2010)은 연령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생애 주요 사건이나 생애주기에 따른 변화로 설명하며, 이런 발달적 변화 혹은 사건들이 개인의 인지, 행동,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곧 자아존중감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선 유아기에는 부모나 교사, 또래의 태도 등에 영향을 받지만(이미리, 2005),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학교생활이나 외모 만족도와 같은 개인적 차이 혹은 부모와의 관계나 양육태도, 빈곤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이미리, 2005; 정익중, 2007; Coopersmith, 1981). 한편 성인기부터는 자아존중감이 경제활동이나 대인관계 등과 같은 사회활동능력 혹은 배우자 여부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lliot, 1996; Twenge and Campbell, 2002). 성인기는 일반적으로 청년기와 중년기 그리고 노년기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시기는 새로운 신체적 기능이나 인지적 능력의 획득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사회, 문화적 요소에 의한 심리사회적 발달이 여전히 진행되는 시기이다. 일반적으로 청년기는 19세부터 35세 미만으로 직업과 결혼, 그리고 결혼생활의 적응이란 과업을 완수

해야 하는 시기이다. 중년기는 35세부터 65세 미만으로 신진대사가 둔화되는 등 신체상의 변화가 시작되며 자녀양육과 부모 부양의 끼인 샌드위치 세대로 부부 만족도는 청년기보다 낮고 부부와 가족관계 그리고 직장유지 등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노년기는 65세 이상으로 빈곤과 질병, 고독과 소외 등에 대처해야 하는 시기이다.

허만세 외 연구자들(2013)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한 생애발달주기별 자아존중감 연구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한 변인(행복, 삶의 만족도, 대인관계, 자살생각, 학교생활적응, 사회적지지, 우울, 가족지지, 스트레스, 불안, 외모 만족도)들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자아존중감 관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가장 높은 시기가 중장년기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생애주기별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를 규명함으로써 사회복지실천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지금까지 수행된 자아존중감 연구를 살펴보면, 대상은 아동기 혹은 성인기에 집중되어 있고,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지만 소수의 연구로 생애주기별 자아존중감을 비교분석한 연구들도 있다(정희옥, 2003; 정인희, 2012; 허만세 외, 2013). 종단연구로는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을 연구한 연구(정익중, 2007)와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 간 종단적 상호관계를 규명한 연구(최희철・김병석, 2005), 그리고 성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연구(김혜미, 2014),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상호순환적 종단관계를 규명한 연구(김선숙・최희철, 2013) 등이 수행되었다.

한편 국외의 생애주기별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에서 청년기부터 성인기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에서 코호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청년기와 중년기까지 상승하던 자아존중감이 60세를 기점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Orth et al., 2010).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아동기에 높았던 자아존중감이 청소년기에 낮아지다 성인기를 거쳐 점차 상승하다 노년기에 잠시 하락한다고 보고되고 있다(Robins and Trzesniewski, 2005). 이에 본 연구는 청년기와 중년기, 그리고 노년기 각 생애주기별 자아존중감 궤적과 영향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자아존중감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애주기별로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에 의하면, 각 시기에 자신에게 접하는 중요한 환경과 타인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청년기와 중년기, 노년기를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중년기의 자아존중감 점수가 가장 높았고, 상대적으로 청년기와 노년기의 자아존중감 점수가 낮음을 보고하고 있다(정인희, 2012).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개인과 가족,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 요인에 영향을 주는 특성을 갖는다(Chung et al., 2014).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근간으로 개인별 특성 요인과 개인 내 변화요인으로 구분하여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영향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개인별 특성 요인

자아존중감과 관련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성별, 교육수준, 연령과 같은 시불변 변수들이 보고되고 있다. 우선, 성별의 경우 선행연구들은 자아존중감과 성별의 관계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최근 수행된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에 있어 남녀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조춘범·김동기, 2010), 성별차이를 규명한 연구(김정미, 2010)도 보고되고 있다.

한편, 청년기와 중년기, 그리고 노년기의 자아존중감을 비교하였을 때, 자아존중감이 연령에 따라 다르며 중년층이 청년이나 노년층에 비해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인희, 2012). 반면 외국 연구에 의하면 9세부터 90세까지 자아존중감의 연령별 차이를 규명한 결과, 아동기에 높았던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에 낮아지다, 성인기를 거쳐 점차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obins and Trzesniewski, 2005). 그리고 이 발달궤적은 성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수준 등과 같은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빈곤 등과 같이 자원이 부족한 계층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선행연구결과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2) 개인 내 변화 요인

① 건강 요인

성인기 자아존중감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심리적 건강 요소로써 우울이나 불안 등의 취약요인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송기숙, 2007; Steiger et al., 2014). 특히 우울은 청년, 중년, 노년 등 모든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정인희, 2012; 김혜미, 2014; Orth and Robins, 2013)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여러 심리적 변인 중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청년층은 자아존중감이 우울발병에 취약요인이었고, 노년층 역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하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최미례·이인혜, 2003; 황미구·김은주, 2008).

건강에 대한 염려가 시작되는 중년기부터는 만성질환과 같은 건강의 악화도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빈곤 등도 중년과 노년기 모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허만세 외, 2013; Hirsch and DuBois, 1991).

② 관계 요인

가족 및 사회적 관계는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요인은 매우 다양한데, 이 중 결혼여부는 성인기 생애주기마다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로, 정인희(2012)는 청년층, 노년층과 달리 중년층은 결혼여부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홍경숙(2010)은 배우자의 지지가 노년층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허만세 외(2013)는 자아존중감에 관련한 기존 연구를 분석한 결과 노년의 자아존중감이 결혼상태와 정적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가족관련 요인의 변화와 자아

존중감의 종단관계를 살펴본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Baldwin과 Hoffman(2002)은 가족응집력의 증가가 자아존중감 수준의 상승을 야기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Elliot(1996)은 결혼여부가 청년기 성인들의 자아존중감 증가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임을 주장하였다.

인간에게 사회적 관계를 통한 자원과 지지는 삶의 질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기본적인 욕구 충족과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만족감은 성인의 자아존중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Harters, 1990). 사회적 요인 중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는 성년기 전 생애주기에 걸쳐 확인되고 있다. 청년기는 사회적 지지를 통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고(황윤경, 1996; Harters, 1990) 노년의 자아존중감은 배우자와 자녀의 사회적 지지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은영, 2008; Krause, 1987). 그러나 생애주기별로 파악했을 때 청년기보다 중년기 이후 실질적인 사회적 지지체계가 좀 더 필요하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이은영, 2008; 정인희, 2012). 또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관계를 분석한 Kinnunen과 동료들(2008)은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의 정적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③ 사회경제적 요인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신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매김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 형성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Leary and Baumeister, 2000). 사회경제적 요인은 일반적으로 교육[1], 소득 및 직업 여부 혹은 직업의 수준 정도로 나누어지며, 자아존중감과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관계에 400개 이상의 논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한 Twenge와 Campbell(2002)의 연구 결과, 고용여부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초기 성인기, 중년기에 걸쳐 자아존중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경우, 연령층에 따라 다른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데, 예로, 중년기와 노년기를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에 대해 연구한 McMullin과 Cairney(2004)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자아존중감 궤적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으나, 14~30세의 청소년과 성인의 자아존중감 궤적을 연구한 Erol과 Orth(2011)의 연구에서는 소득의 변화가 자아존중감 궤적에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obins 외(2002)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는 초기 성인기 혹은 노년기 보다 중장년기에 속한 개인의 자아존중감 변화를 예측하는데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1) 일반적으로 궤적 연구에서 교육은 시불변 변수로 취급되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앞서 개인별 특성요인에서 제시하였다.

3.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1~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 전국 7,072가구의 가구원 14,469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시작되어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가구의 기본 정보, 가구원의 건강 및 경제활동상태를 비롯하여 생활실태에 대한 만족도, 정신건강 등의 포괄적인 문항으로 구성되는 광범위한 조사이다. 7차 조사까지 74.53%의 원표본이 유지되었으며, 2차 조사 이후 분가, 결혼 등의 이유로 원가구로부터 분리된 신규가구와 가구원을 조사에 포함시켜왔고, 8차 조사에서는 표본이탈을 보완하기 위해 1,800가구(3,250명)를 신규표본으로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전체 조사대상 중 1차 조사가 실시된 2005년을 기준으로 19세 이상 성인을 추출하였고, 사망 등의 이유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례 32명,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아존중감이 한 번도 조사되지 않은 392명과 주요 변수인 가족관계 만족도 미조사 사례 6명, 8차년도에 신규로 포함된 사례를 제외한 총 15,511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최종 분석 대상의 조사 횟수는 평균 5.9회이다.

2) 측정 도구

(1) 종속변수 : 자아존중감

한국복지패널은 가구원용 설문 중 정신건강 항목으로 우울에 대한 인식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을 묻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 Self Esteem Scales을 기초로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좋은 성품을 지녔다”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한“1: 대체로 그렇지 않다”~“4:항상 그렇다”의 응답을 역문항 처리 후 평균값을 구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는 조사차수별로 0.7863~0.8198 범위에 있었다.

(2) 독립변수

① 개인별 특성 요인(인구사회학적 요인)

개인별 고정된 특성으로 성별과 학력수준, 연령을 독립변수로 활용한다. 성별은 남성을 ‘0’, 여성을 ‘1’로 코딩하였다. 학력수준은 “중졸 이하”, “고졸”, “대학 이상”의 3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연령은 19~34세의 청년층, 35~64세의 중년층, 65세 이상의 노년층으로 구분하였다.

② 개인 내 변화 요인(time varying variables)

성별, 연령과 같이 고정된 특성이 아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들 역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

친다. 이 중 건강 요인으로 우울에 대한 인식, 만성질환 정도를, 관계 요인으로 가족관계 만족도와 혼인상태 및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고용여부와 빈곤여부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우울에 대한 인식은 CESD-11을 기초로 하여 구성된 지난 1주일 간 "식욕 없음", "비교적 잘 지냄", "잠을 설침" 등 총 11개 문항에 대해 "극히 드물다(1주일에 1일 이하):0"~"대부분 그랬다(1주일에 6일 이상):3"의 응답을 역문항 처리 후 모두 더한 후 20/11을 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는 조사 차수에 따라 0.8546~0.8743 수준을 나타냈다.

만성질환 정도는 만성질환 "비해당:0", 투병, 투약 기간 "3개월 미만:1", "3~6개월:2", "6개월 이상:3"의 응답을 활용하였다.

가족관계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는 가구원용 설문 중 생활실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우 불만족:1"~"매우 만족:5"로 조사된 값을 활용하였다. 혼인 상태는 "배우자 있음:1"과 "배우자 없음(사별, 이혼, 별거, 미혼):0"으로 구분하였다.

고용여부는 조사년도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중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고용되지 않은 상태:0"으로,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은 "고용 상태:1"로 구분하였다. 빈곤여부는 상대빈곤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의 소득이 전체 조사대상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빈곤(=1)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비빈곤(=0)으로 구분하였다.[2)]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추정하는 데에 널리 활용되는 다층모형(multilevel models)을 주된 분석방법으로 삼는다. 다층모형은 학교-아동과 같은 위계적 구조의 자료를 다루는 데에 널리 활용되지만, 패널 데이터와 같은 반복 측정된 자료를 활용하여 다층성장모형(multilevel growth curve model)을 구성할 경우 개인 간(between persons) 및 개인 내(within persons) 차이를 동시에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다층성장모형은 종속변수의 변화함수를 추정하는 1수준(level-1) 및 1수준 모형에 포함된 출발점의 값과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2수준(level-2) 모형으로 구성된다. 아래 식은 독립변수의 투입 없이 초기치와 변화율을 추정하는 기초모형(unconditional model)을 수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text{1수준}: Y_{ti} = \pi_{0i} + \pi_{1i} T_{ti} + e_{ti}$$
$$\text{2수준}: \pi_{0i} = \beta_{00} + \gamma_{0i}$$
$$\pi_{1i} = \beta_{10} + \gamma_{1i}$$

2) 빈곤 여부가 아닌 가구 소득을 보다 직접적인 사회경제적 변수로 활용할 수 있다. 이후 분석 과정에서 균등화된 가구 소득을 활용한 경우, 빈곤 여부와 유사하게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계수의 크기가 매우 작아(0.000) 연령층별 비교분석 등에 어려움이 있어 빈곤 여부를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활용하였다.

위 식에서 Y_{ti}는 t 시점에서 개인 i의 측정치를 의미하며, T는 측정시점에 따른 시간값으로, 최초 측정시점을 '0'으로 설정하면 π_{0i}는 개인 i의 초기값(initial status)이 되고 π_{1i}는 변화율(change rate)이 된다. e_{ti}는 t시점에서 개인 i의 오차로 평균이 0, 공통분산 σ^2을 갖는 정상분포를 가정한다.

2수준 수식에서 β_{00}은 초기치의 전체평균, β_{10}은 변화율의 전체평균을 의미하며 γ_{0i}와 γ_{1i}는 각기 τ_{00}, τ_{11}의 분산과 τ_{01}의 공분산을 갖는 개인i의 무선효과(random effect)가 되고, 평균에서 벗어난 개인 차이를 의미한다. 이 때 초기치와 변화율의 개인차이가 유의미하다면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독립변수를 추가한 조건모형(conditional model)을 구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조건모형을 구성하였다. 첫번째는 개인 차이를 설명하는 성별, 학력과 같은 시불변(time-invarying) 독립변수 X를 2수준에 투입한 모형이다.

$$\pi_{0i} = \beta_{00} + \sum_{q=1}^{k} \beta_{0q} X_{qi} + \gamma_{0i},$$
$$\pi_{1i} = \beta_{10} + \sum_{q=1}^{k} \beta_{1q} X_{qi} + \gamma_{1i}.$$

두 번째 조건모형은 우울, 소득, 고용상태 등과 같이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시변(time-varying) 변수 Z를 1수준에 투입한 모형이다.

$$\begin{aligned} &1\text{수준}: Y_{ti} = \pi_{0i} + \pi_{1i} T_{ti} + \pi_{2i}(Z_{ti}) + e_{ti} \\ &2\text{수준}: \pi_{0i} = \beta_{00} + \beta_{01} \overline{Z}_i + \gamma_{0i} \\ &\qquad\quad \pi_{1i} = \beta_{10} + \gamma_{1i} \\ &\qquad\quad \pi_{2i} = \beta_{20} \end{aligned}$$

이 때 Z_{ti}에서의 개인내 차이가 종속변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시변변수는 고정효과로 제한하여 모델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시변변수의 영향에는 시간에 따른 개인 내 변화와 개인 간 평균 차이가 동시에 반영되므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1수준의 시변변수는 개인평균 중심점 교정(group mean centering)을 하고 시변변수 개인 평균값 $\overline{Z}_i$를 2수준 초기치 식에 포함시켰다. 이럴 때에 β_{20}은 개인 내 변화의 영향을 반영한 추정치가 되고 β_{01}은 시변변수의 개인 간 평균차를 반영한 추정치가 된다(Raudenbush and Bryk, 2002).

세 번째 조건모형은 시변 및 시불변 변수를 모두 포함시킨 혼합 모형(combined model)으로 개인별 특성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시변변수들의 영향력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세 가지 조건모형 중 첫 번째와 세 번째 조건 모형을 적용한 결과를 다음 장에 제시하였다.

4. 분석 결과

1) 기술분석

19세 이상 성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그 중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중년층의 비중이 49.2%로 높고, 청년층 28.5%, 노년층 22.3%로 노년층의 비중이 가장 낮았다. 성별과 연령대별로 학력 수준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여성의 경우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 비중이 24.3%인 것에 비해 남성의 경우 37.3%였고, 연령대별로도 노년층의 경우 5.5%만이 고학력인 것에 비해 청년층은 64.8%가 고학력 상태에 있었다. 청년층의 경우 성별에 따른 학력 격차가 고학력을 기준으로 4.5%p(남성 67.1%, 여성 62.6%)였으나 노년층에서는 10.4%p(남성 11.7%, 여성 1.4%)로 나타났다.

〈표 1〉 분석 대상의 특성

변수명	구분	%	학력		
			중졸 이하	고졸	대학 이상
성별	남	46.05	29.29	33.40	37.31
	녀	53.95	48.30	27.40	24.29
연령	19~34세	28.53	1.54	33.69	64.78
	35~64세	49.17	40.96	37.52	21.52
	65세 이상	22.29	85.08	9.43	5.49

〈표 2〉 자아존중감 변화 추이

차수	전체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차	2.98	0.44	3.10	0.39	3.00	0.43	2.81	0.43
2차	2.97	0.46	3.11	0.41	2.99	0.45	2.80	0.46
3차	3.00	0.44	3.15	0.39	3.02	0.43	2.83	0.42
4차	3.01	0.44	3.15	0.39	3.02	0.43	2.82	0.44
5차	3.03	0.43	3.22	0.35	3.04	0.41	2.80	0.43
6차	3.01	0.42	3.19	0.36	3.02	0.41	2.78	0.42
7차	3.01	0.42	3.19	0.36	3.02	0.40	2.78	0.41
8차	3.03	0.43	3.20	0.37	3.04	0.40	2.80	0.43

종속변수인 자아존중감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2.98(표준편차 0.44)에서 3.03(표준편차 0.43)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보면 청년층은 3.10(1차 조사)에서 3.20(8차)으로 가장 증가폭이 컸고, 중년층은 3.00에서 3.04로 증가,

노년층은 2.81에서 2.80으로 다소 감소하여 연령대별로 다른 추이를 보였다.

HLM 프로그램(버전 6.02)은 2수준에서의 결측은 허용되지 않으나 1수준에 결측이 있는 불완전 사례(incomplete cases)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분석 대상의 평균 조사 횟수는 5.9회인데, 청년층의 경우 5.2회, 중년층 6.1회, 노년층 6.2회로 청년층의 조사 횟수가 더 적었다. 이는 학업과 취업, 결혼 등으로 청년층 이동이 상대적으로 많음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자아존중감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시변변수들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우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졌고(1차 10.75, 8차 6.83), 사회적 친분관계나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연령대별로는 노년층의 우울 수준이 가장 높고, 사회적 친분관계와 가족관계는 연령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정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년층일수록 질환의 정도가 높았고, 고용과 유배우자의 증가는 청년층이 주도하였고, 빈곤율은 노년층이 가장 높고 청년층이 가장 낮았다.

〈표 3〉 시변 독립변수 변화 추이

변수명		1차		5차		8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우울	전체	10.75	11.05	9.18	9.57	6.83	8.76
	청년층	7.72	8.97	4.59	6.69	4.28	6.79
	중년층	10.17	10.68	7.83	9.18	6.42	8.40
	노년층	15.15	12.35	12.84	10.96	10.85	10.19
만성질환 정도	전체	1.03	1.41	1.42	1.45	1.61	1.46
	청년층	0.11	0.56	0.31	0.87	0.44	1.00
	중년층	0.93	1.38	1.42	1.46	1.72	1.44
	노년층	2.20	1.31	2.51	1.09	2.70	0.88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전체	3.53	0.77	3.63	0.80	3.76	0.66
	청년층	3.67	0.70	3.87	0.62	3.82	0.60
	중년층	3.56	0.76	3.80	0.67	3.77	0.66
	노년층	3.36	0.82	3.67	0.71	3.65	0.73
가족관계 만족도	전체	3.78	0.78	3.83	0.75	3.87	0.71
	청년층	3.95	0.69	4.02	0.66	4.03	0.65
	중년층	3.82	0.75	3.84	0.71	3.84	0.71
	노년층	3.51	0.85	3.68	0.76	3.73	0.71
혼인상태 (유배우=1)	전체	0.67		0.67		0.69	
	청년층	0.46		0.56		0.66	
	중년층	0.82		0.79		0.78	
	노년층	0.59		0.55		0.51	
고용여부 (고용=1)	전체	0.55		0.57		0.60	
	청년층	0.54		0.69		0.75	
	중년층	0.65		0.68		0.67	
	노년층	0.32		0.30		0.27	
빈곤여부 (빈곤=1)	전체	0.40		0.34		0.32	
	청년층	0.19		0.10		0.09	
	중년층	0.34		0.28		0.27	
	노년층	0.74		0.65		0.69	

2) 자아존중감 영향 요인

(1) 기초 모형(unconditional model)

19세 이상 성인의 자아존중감 발달의 변화를 추정하고 개인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적으로 적합한 모형을 선택해야 한다. 절편만을 포함한 완전무조건부 모형과 자존감의 시간적 변화율을 추가한 선형(linear) 모형, 변화율의 이차항을 포함한 이차함수(quadratic)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이차함수 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 완전무조건부 모형-선형모형 간 차이의 통계치는 $\chi^2(3)=962.06$, 선형-이차함수 모형 간 $\chi^2(4)=228.81$이었고, 청년/중년/노년층으로 구분한 연령대별 모델에서도 이차함수 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높아, 기초모형으로 이차함수 모형을 선택하였다.

〈표 4〉는 최종 기초모형으로 선택된 이차함수 모형의 추정치이다. 시간은 1차부터 8차까지를 0, 1,..., 7로 코딩하였으므로 β_{00}은 1차 조사시점에서의 평균적인 자아존중감을 의미하며, 해마다 평균 0.012(=0.013-0.001) 만큼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연령대로 구분하였을 때, 청년층의 1차 조사 초기치(3.092)와 평균적 변화율(0.030)이 중년층(2.989, 0.011)에 비해 높았고, 노년층의 경우 자아존중감의 하락 추세가 관찰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계수(표준화된 공분산 τ_{01}')는 -0.243으로 첫 조사시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초기치와 변화율 이차항의 상관계수는 0.066으로 낮은 정적 관계에 있었고(노년층의 경우에만 -0.046으로 초기치가 높을수록 변화율 가속화 정도가 낮음), 변화율과 변화율 이차항은 -0.899로 자아존중감의 증가속도가 클수록 변화율 가속화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무선효과 즉, 개인 간 차이가 유의하게 추정되어 조건모형 구성의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표 4〉 기초 모형 추정치

	전체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초기치, β_{00}	2.978***	0.003	3.092***	0.006	2.989***	0.005	2.812***	0.007
변화율, β_{10}	0.013***	0.002	0.033***	0.003	0.012***	0.002	-0.003	0.004
(변화율)^2, β_{20}	-0.001***	0.000	-0.003***	0.000	-0.001**	0.000	-0.001	0.001
무선효과	변량(variance component) 및 공분산							
초기치	0.099***		0.080***		0.096***		0.082***	
변화율	0.007***		0.008***		0.008***		0.005***	
(변화율)^2	0.010***		0.000***		0.000***		0.000***	

주) * : p<.05, ** : p<.01, *** : p<.001

(2) 조건 모형(conditional model)

① 개인별 특성 요인의 효과

성별과 교육수준 등의 개인별 특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2수준에 각 독립변수를 포함시켰다(〈표 5〉 참조). 교육수준은 저학력에 비해 고학력으로 갈수록 초기치가 높았고 자아존중감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중년층에서는 중졸에 비해 고졸자의 자아존중감 변화율이 더 컸고, 노년층에서는 중졸에 비해 대학 이상 학력자의 변화율이 더 낮게 추정되었다. 청년층에 비해 노년층의 자아존중감 초기치가 낮고, 변화율 역시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졌으나 노년층의 변화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5〉 개인별 특성요인의 효과

	전체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초기치								
절편	2.889***	0.011	2.877***	0.047	2.875***	0.009	2.817***	0.011
성별(여성=1)	-0.018**	0.006	-0.053***	0.011	0.022*	0.009	-0.060***	0.013
교육수준[1]								
고졸	0.120***	0.008	0.133**	0.047	0.122***	0.010	0.145***	0.022
대학 이상	0.278***	0.009	0.309***	0.047	0.263***	0.012	0.325***	0.028
연령[2]								
중년층	0.002	0.003						
노년층	-0.096***	0.011						
변화율								
절편	0.023***	0.003	0.031**	0.009	0.010**	0.003	-0.003	0.004
성별(여성=1)	0.003**	0.001	0.006**	0.002	0.002	0.002	0.002	0.003
교육수준[1]								
고졸	0.003	0.002	0.002	0.009	0.003*	0.002	-0.017	0.004
대학 이상	-0.002	0.002	-0.004	0.009	0.002	0.002	-0.014*	0.006
연령[2]								
중년층	-0.009***	0.002						
노년층	-0.025***	0.002						
(변화율)^2	-0.001***	0.000			-0.001**	0.000		
무선효과	변량(variance component)							
초기치	0.080***		0.071***		0.087***		0.073***	
변화율	0.007***		0.008***		0.008***		0.005***	
(변화율)^2	0.000***		0.000***		0.000***		0.000***	

주) * : p<.05, ** : p<.01, *** : p<.001, 1) 중졸 이하 기준, 2) 청년층 기준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미친 성별의 영향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자아존중감의 초기치가 남성에 비해 낮고 변화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초기값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증가율이 크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고, 학력에 있어서도 고학력자의 높은 초기치가 변화율 추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초기치를 통제한 상태에서 변화율을 추정할 필요가 있어 HLM 프로그램의 잠재회귀 방법(Latent variable regression)을 활용하였고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Raudenbush and Bryk, 2002:361-364; 홍세희 외, 2006; Choi and Seltzer, 2010).[3)]

〈표 6〉 변화율에 대한 개인별 특성 요인의 효과(초기치 통제)

	전체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절편	0.296***	0.026	0.441***	0.051	0.276***	0.033	0.128*	0.063
성별(여성=1)	0.002	0.001	-0.002	0.002	0.004**	0.001	-0.001	0.003
교육수준[1)]								
고졸	0.014***	0.002	0.021*	0.007	0.015***	0.002	0.005	0.005
대학 이상	0.025***	0.003	0.040**	0.008	0.026***	0.004	0.001	0.009
연령[2)]								
중년층	-0.009***	0.001						
노년층	-0.034***	0.002						
초기치	-0.095***	0.009	-0.142***	0.017	-0.093***	0.011	-0.047*	0.022

주) * : p<.05, ** : p<.01, *** : p<.001, 1) 중졸 이하 기준, 2) 청년층 기준

초기치를 통제한 결과,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모델에서 변화율의 성별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령별 모델에서는 초기치 통제 이전과 성별 차이에서 다른 양상이 나타났는데, 청년층과 노년층에서는 성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고, 중년층 여성은 초기치와 더불어 변화율 역시 남성보다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학력에 따른 변화율의 차이는 노년층을 제외한 모델에서 고학력자의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고학력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년층에서 변화율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노년층의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또 다른 요인이 존재할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② 개인별 특성 및 개인 내 변화 요인의 혼합 효과

두번째 조건모형은 개인별 특성 모형에 우울, 만성질환, 고용상태 등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개인 내 변화요인을 포함시킨 것이다. 분석 방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인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초기치에 각 변수의 개인별 평균을 포함시켰다(〈표 7〉 참조).

개인 내 변화 요인 중 우울인식의 증가는 자아존중감에 부적 영향을 미쳤고(-0.013, p-value=0.000), 만성질환 정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0.011, p-value=0.000). 사회적 관계와 가족 관계 만족도는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고용 상태인 경우, 비빈곤 상태인 경우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3) 이 때, 변화율은 $\pi_{1i} = \alpha_{10} + \alpha_{11}*(\text{성별})_i + \alpha_{12}*(\text{교육수준})_i + \alpha_{13}*(\text{연령층})_i + \alpha_{13}*\pi_{0i} + u^*_{1i}$ 이 된다.

개인 내 변화요인의 효과에 있어 연령대별로 몇 가지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만성질환 정도의 변화는 노년층에서, 고용상태의 변화는 청년층에서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배우자 유무는 청년층에서만, 빈곤 여부는 중년층에서만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내 변화요인을 반영한 결과, 개인별 특성 요인의 효과에 몇 가지 변화가 발견되었다. 1차 조사 초기치에 대한 성별 효과에서 노년층 여성의 초기치가 중년층과 마찬가지로 남성에 비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치에 대한 교육 수준의 효과는 중졸-고졸 간 자아존중감 차이가 노년층에서만 확인되었고, 청년과 중년층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개인별 특성 모델에서와 같이, 초기치를 통제한 변화율을 추정한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초기치를 통제하기 전, 청년층에서 여성의 자아존중감 변화율이 남성보다 높았으나, 초기치를 반영한 이후에는 중년층에서만 여성 자아존중감 변화율의 상대적 우위만이 확인되었다. 초기치 통제 이후 변화율의 학력 간 차이가 유의하게 추정되었고, 특히 노년층에서의 학력 간 변화율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개인별 특성 및 개인 내 변화 요인의 혼합 효과

	전체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초기치								
절편	2.945***	0.009	3.066***	0.039	2.969***	0.007	2.797***	0.009
성별(여성=1)	0.027***	0.005	-0.019*	0.009	0.051***	0.007	0.038**	0.011
교육수준[2]								
고졸	0.016*	0.006	0.014	0.039	0.011	0.008	0.075***	0.017
대학 이상	0.094***	0.007	0.107**	0.039	0.073***	0.009	0.181***	0.022
연령[3]								
중년층	0.010	0.001						
노년층	0.044***	0.002						
우울인식평균	-0.018***	0.000	-0.021***	0.001	-0.018***	0.000	-0.016***	0.001
만성질환 평균	-0.011***	0.002	-0.024***	0.005	-0.010***	0.002	-0.016***	0.004
사회관계만족도 평균	0.185***	0.004	0.176***	0.008	0.193***	0.006	0.173***	0.008
가족관계만족도 평균	0.077***	0.004	0.066***	0.008	0.079***	0.006	0.084***	0.008
배우자 유무 평균	0.017***	0.004	0.021**	0.007	0.010	0.006	0.028**	0.008
고용 여부 평균	0.063***	0.004	0.034***	0.009	0.069***	0.006	0.086***	0.009
빈곤 여부 평균	-0.048***	0.005	-0.022	0.014	-0.052***	0.007	-0.057***	0.009
변화율								
절편	0.003	0.002	0.018*	0.009	-0.006*	0.003	-0.020***	0.004
성별(여성=1)	0.002*	0.001	0.006**	0.002	0.002	0.001	-0.002	0.002
교육수준[1]								
고졸	0.004**	0.001	-0.004	0.008	0.005**	0.002	0.000	0.004
대학 이상	0.003	0.002	-0.008	0.008	0.006**	0.002	-0.009	0.005
연령[2]								
중년층	-0.007***	0.001						
노년층	-0.021***	0.002						
(변화율)^2	0.000*	0.000	-0.002***	0.000	0.000	0.000	0.000	0.000
우울인식	-0.013***	0.000	-0.015***	0.000	-0.012***	0.000	-0.012***	0.000
만성질환	-0.005**	0.001	-0.006*	0.003	-0.006**	0.002	-0.003	0.003
사회관계만족도	0.077***	0.002	0.072***	0.004	0.077***	0.002	0.082***	0.004
가족관계만족도	0.050***	0.002	0.046***	0.004	0.054***	0.003	0.046***	0.004
배우자 유무	0.006	0.008	0.029*	0.012	-0.011	0.012	-0.005	0.016
고용 여부	0.032***	0.004	0.010	0.006	0.041***	0.006	0.047***	0.009
빈곤 여부	-0.008*	0.004	-0.009	0.009	-0.014**	0.005	0.002	0.008

주) * : p<.05, ** : p<.01, *** : p<.001
1) 중졸 이하 기준, 2) 청년층 기준

〈표 8〉 변화율에 대한 개인별 특성 및 개인내 변화 요인의 혼합 효과(초기치 통제)

	전체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절편	0.578***	0.038	0.667***	0.067	0.593***	0.052	0.392**	0.112
성별(여성=1)	0.008***	0.001	0.002	0.001	0.012***	0.001	0.004	0.002
교육수준[1]								
고졸	0.007***	0.001	-0.001	0.005	0.007***	0.001	0.011**	0.004
대학 이상	0.021***	0.002	0.015*	0.006	0.021***	0.002	0.018*	0.008
연령[2]								
중년층	-0.005***	0.001						
노년층	-0.013***	0.001						
초기치	-0.195***	0.013	-0.211***	0.021	-0.202***	0.018	-0.147***	0.040

주 : * : p<.05, ** : p<.01, *** : p<.001, 1) 중졸 이하 기준, 2) 청년층 기준

5. 논의 및 결론

자아존중감은 사회복지실천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 주요 변수로 다루어져왔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개인의 안녕을 결정짓는 중요한 내적 자원이자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한 개입지점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아존중감이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유지 혹은 변화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생애주기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변화와 자아존중감이 기질적 요소(trait-like construct)인지 혹은 상태적 요소(state-like construct)인지를 검증하는 연구가 해외에서는 비교적 활발히 실행된 것에 비해 국내에서는 아동·청소년기를 제외한 다른 생애주기에서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대한 탐색은 깊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기여하는 요인 규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런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작된 연구로 한국 성인기의 자아존중감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차~8차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8년에 걸친 자아존중감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성별, 연령 및 교육수준과 같은 시불변 변수들과 더불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 가능한 관계 만족도, 결혼여부, 우울 인식, 빈곤여부 등의 시변 변수를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인기의 자아존중감은 전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층과 중년층의 자아존중감은 유의하게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이 증가폭은 청년기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노년층의 자아존중감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자아존중감에 대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아동기에 형성된 자아존중감이 청소년기를 걸쳐 급락하다가 약 18세를 기점으로 큰 증가추

세를 보이며 이런 궤적은 30대, 40대와 50대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노년기에 접어드는 시점인 65세 전후로 감소된다는 Robins와 동료들(2002), Orth와 동료들(2010)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런 자아존중감의 궤적은 생애주기별 발달과업 및 특징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로 질풍노도의 시기로 불리는 청소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급격한 신체적·인지적 변화와 더불어 주변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친밀한 관계 형성에 있어서의 어려움, 학업성취와 관련된 스트레스 및 진로 설정에서의 혼란 등으로 인해 아동기에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에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반면에, 청년기와 중장년기로 구성된 성인기에는 이런 자신과 주변인들에 대한 혼란에서 일부 벗어나게 되며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 직업적 성취, 친밀한 관계 형성 등의 발달과업을 성실히 성취하게 되면서 자아존중감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Orth et al., 2010). Erikson(1968)의 설명대로 성인기는 생산성을 중심으로 개인의 삶이 진행되는 시기로 개인의 삶에 있어 가장 생산적이고, 많은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며 심리적으로 성숙하게 되면서 건강하게 자기 개념을 유지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Crocker and Wolfe, 2001; Robins et al., 2002). 하지만 노년기는 성인기와는 달리 성장보다는 상실과 손실의 특성을 가지는데, 은퇴와 빈 둥지 가족 등으로 인한 역할 상실과 사별, 사회적 지지관계 축소와 같은 관계상의 변화, 노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신체적 기능 저하 등 인생 다양한 영역에서의 상실과 기능 저하는 부정적 자기개념의 강화, 즉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렇다면 자아존중감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성별과 교육수준, 연령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면 여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평균적인 자존감의 초기치가 낮았으며 평균적인 자존감의 변화율은 여성일수록,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높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변화율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성별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한국인의 성인기 자아존중감 궤적을 연구한 김혜미(2014)의 연구와 미국 성인의 자아존중감 궤적을 연구한 Orth와 동료들(2010)의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하나, 변화에 있어 청소년기 이후 성별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Robins 외(2002)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더 나아가, 개인 내 변화요인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결과 여성의 경우 청년층을 제외한 모든 모델에서 초기치 역시 남성에 비해 높았고 중년층의 경우 변화율도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이전에 실행된 자아존중감 궤적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애주기에 걸쳐 여성의 자아존중감이 남성보다 낮게 나타난다는 일반적인 논의와 상반되게 본 연구에서는 실제 남성의 높은 자아존중감이 발견된 연령층은 청년층뿐으로, 19~34세 사이의 청년층의 경우 초기치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있어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연령층인 중년층과 노년층 두 연령집단에 있어서는 여성의 자아존중감 초기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의 증가에 있어서도 중년층에서는 여성의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에 있어 여성이 취약하다는 이전의 논의(Kling et al., 1999)가 한국 성인에게 있어서는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와 같이 시변 변수를 모두 통제한 Orth와 동료들(2010)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여성의 자아존중감이 초기 성년기에는 낮게 나타나지만 궤적이 노년기에 이르러서는 남성과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궤적의 어느 지점에서도 여성의 자아존중감이 남성의 자아존중감보다 높게 나타나지 않기에

본 결과는 한국 성인의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남자 청소년보다 신체적, 인지적 성숙이 비교적 빨라 스스로의 신체상과 외부로부터의 자신에 대한 평가에 민감한 여자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자아존중감이 급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이런 성별 차이가 청년기 초반에도 이어져 여성 자아존중감 수준이 초기치에는 유의하게 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한국적 문화 내에서 남성보다 외부 시선에 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특성도 기인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성의 자아존중감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회복하여 35세 이후부터는 남성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현재까지 여성의 취약성과 여성 중심적으로 진행되어 온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반증하는 결과로 향후 자아존중감 관련 연구 및 실천적 접근 방향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 성인 남성의 자아존중감이 청소년기 이후부터는 비교적 더디게 증가하고 여성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결과는 내적 자원으로써의 자아존중감이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 성인 남성이 오히려 우울에 더 취약한 집단이며 더 나아가 자아존중감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노년기에 남성집단이 우울과 같은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이는 성인의 심리사회적응에 대한 개입에서 남성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개입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전체 집단의 자아존중감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 변화요인들로는 결혼여부를 제외한 모든 변수, 즉, 우울, 만성질환 수준, 빈곤 여부, 고용 여부 및 관계 변수인 사회관계 만족도와 가족관계 만족도가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발견되었다. 우선,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이미 축적된 다수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변화율이 부적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한 김혜미(2014)의 최근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같은 관계 관련 변수가 전 연령층에 걸쳐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자아존중감 발달에 있어 대인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Harters(1990)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만족할수록,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할수록 개인의 자아존중감이 증가한다는 것은 자아존중감이라는 자기 개념이 궁극적으로 사회화(socialization)과정에서의 성공과 주변인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반영하는 개념이며 개인이 중요시 여기는 주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려준다(Orth et al., 2010). 실제 Roberts와 Bengston(1996)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가족관계를 친밀하다고 인식할수록 자아존중감의 변화가 상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Kinnunen와 동료들(2008)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어,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시변 변수로는 건강변수로 투입된 만성질환 정도이다. Reitzes와 동료들(1996)은 건강과 자아존중감이 종단적 상호관계를 가지는 변인이라 설명하였다. 즉, 건강 문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개인의 경우 사회적 기능과 심리적 기능이 일부 축소 혹은 단절되면서 성인기에 경험해야 할 직업과 관계 형성과 관련된 성취감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부정적

자기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만성질환 정도의 영향이 청년층과 중년층에만 유의하다는 점이며 노년기 개인에게는 만성질환 정도가 악화되는 것이 자아존중감의 변화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하면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여러 가지 발달과업이 집중적으로 몰려있고 또한 성취여부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청년기와 중장년기 성인에게 만성질환을 경험하고 질환의 정도가 악화되는 것은 이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 수행에 장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성공적 자기를 성취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진로, 직업, 가족관계 형성 및 유지와 같은 과업으로부터 자유로운 노년기 성인에게는 자신에게 가치매김에 있어 무관하며 오히려 노년기 개인에게는 이런 건강 문제가 자연스런 노화의 과정으로 인식되어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노년기 자아존중감을 연구한 Benyamini와 동료들(2004)의 연구에서 건강에 대한 자기 인식이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했음을 고려할 때,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를 활용하여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변수(SES)가 자아존중감의 변화의 영향을 미친다는 Twenge와 Campbell(2002)의 주장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개인의 사회경제적 변수(SES)로 투입된 고용여부 및 빈곤 여부 역시 개인의 자아존중감 변화를 예측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고용여부와 빈곤여부를 연령층으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고용여부의 경우 청년층을 제외한 중년층과 노년층에서만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과 빈곤여부 역시 중년층에서만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Twenge와 Campbell(2002)과 Robins와 동료들(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두 연구에서 모두 중년층에서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가장 영향력 있는 예측요인으로 발견되었다. 고용여부의 경우 앞서 언급한 대로 19~34세로 이루어진 청년층은 고용 준비 및 탐색기간의 특징을 가지며 특히 현재 청년층의 경우 교육기간이 증가하고 졸업시기가 유예됨에 따라 직업으로의 진입이 점차 늦어짐을 고려할 때 이들의 고용여부 자체는 이들의 자기개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생산성과 직업적, 관계적 생산성의 정점이 이루어지는 중장년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할 때, 고용여부는 성취, 성공과 결합된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곧 본 연구결과와 같이 중년층에게는 고용여부가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빈곤여부가 중년층에서만 유의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난 것 역시 중년층에서의 직업 활동이 중요한 활동이며, 이를 통한 소득창출 역시 개인이 성취해야 할 과업 중에 하나로 인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생애주기에 걸쳐 가장 많은 지출 및 경제적 책임이 부과되는 중장년기의 빈곤은 자아존중감에 타격을 입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청년기에 속한 개인의 경우 빈곤여부가 본인의 발달과업 성취와는 무관한 가족의 특성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의 변화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체 집단의 자아존중감 변화를 예측하는 요인은 아니지만,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봤을 때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는 배우자 유무이다. 배우자 유무는 청년층에서만 자아존중감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년층과 노년층에는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생애주기에 따른 발달과업 성취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결과로 19~34세 사이의 결혼여부는 친밀한 관계 형성 및 유지의 성공을 가리키는 지표이며 청년기에 중요한 발달과업임을 알려준다. 또한 이는 초기 성년기 여성의 자아존중감을 연구한 Elliot(1996)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결혼여부,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30대 중반 이전까지 결혼이라는 발달과업을 성취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사회의 승인과 더불어 개인의 삶에 중요한 '지지 자원' 획득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자아존중감은 상태적 특성을 지닌 자아개념으로 개인의 삶에 일어난 다양한 사건과 변화에 의해 지속적으로 반응하고 결과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각 생애주기에서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과 밀접하게 맞물려 진행됨을 알 수 있으며 발달과업에서의 성공경험이 부재할 경우 자아존중감 역시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일반적으로 논의되었던 여성의 자아존중감 취약성이 본 연구에서는 지지되지 않았으며 특히 중년층에서 여성의 자아존중감은 회복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한 개입에서 대상자를 여성에서 남성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본 연구 역시 여러 한계점을 가지는데 먼저, 본 연구는 생애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는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와 기간효과(period effect), 그리고 연령 효과(aging effect)를 본 연구에서는 구분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해 본 연구는 8년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연령대별로 비교한 것으로, 생애과정에서의 자아존중감 변화를 추적한 연구는 아니다.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생애 궤적이 코호트별로 어떤 차이를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2차 데이터의 한계 상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연구모형에 포함되지 않아 후속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사건과 같은 요인을 포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분석 요인을 보다 정교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로, 건강 변수의 경우 만성질환 정도 뿐 아니라 실제 자아존중감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기능적 건강 및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도 포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선숙·최희철, 2013,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상호 순환적 종단관계", 『상담학연구』, 14(4): 2417-2430.

김영옥·김성희, 2013, "가정폭력 노출 아동용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초등교육연구』, 26(3): 43-68.

김정미, 2010, "아동 및 청소년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역할", 『청소년학연구』, 17(8): 79-104.

김혜미, 2014, 한국 성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인지취약모델과 상처모델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 45(2): 233-261.

송기숙, 2007, "노인의 자아존중감 영향요인",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미리, 2005, “청소년기 자아존중감과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변인들의 관계-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42: 263-293.

이은영, 2008, “사회적 지지가 은퇴 남성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익중, 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18(3): 127-166.

정인희, 2012, “성인 생애주기별 자아존중감 영향요인 연구: 청년, 중년, 노년층의 비교”, 『한국위기관리논집』, 8(6): 231-247.

정희옥, 2003, “자아존중감 발달에 관한 횡단연구: 전라남도 지역의 초·중·고등학생과 교사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41(3): 451-464

조춘범·김동기, 2010, “청소년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검증- 성별간 다집단 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4): 207-229.

최미례·이인혜, 2003, ”스크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임상』, 22(2): 363-383.

최희철, 2011, “자기존중감과 우울의 상호적 관계: 인지적 취약성 모델, 상처모델, 상호순환적 효과 모델의 검증”, 『상담학연구』, 12(6): 2251-2271.

최희철·김병석, 2005, “기존중감과 학업성취사이의 자기회귀교차지연효과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2): 327-356.

허만세·곽아람·도문학·이순희·한은숙·박선민·김현숙·김영숙, 2013, “생애발달주기에서 본 자아존중감에 대한 체계적 고찰”, 2013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자료집.

황미구·김은주, 2008, ”노인의 주관적인 삶의 질과 자아존중감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우울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한국노년학』, 28(4): 865-885.

홍경숙, 2010, “생태체계요인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세희·박언하·홍혜영, 2006, “다층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자아개념 변화 추정: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부모효과와 또래효과의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17(2): 241-263.

황윤경, 1996, “청소년 또래집단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심리사회적 성숙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Baldwin, S. A., and Hoffmann J. P., 2002, “The dynamics of self-esteem: a growth- curve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1(2): 101-113.

Benyamini, Y., Leventhal, H., and Leventhal, E. A., 2004, “Self-rated oral health as an independent predictor of self-rated general health, self-esteem, and life-satisfaction”, *Social Science and Medicine*, 59: 1109-1116.

Choi, K., and Seltzer, M., 2010, “Modeling heterogeneity in relationships between initial status and rates of change: Treating latent variable regression coefficients as random coefficients in a three-level hierarchical model”, *Journal of Educational and Behavioral Statistics*, 35(1): 54-91.

Chung, J. M., Robins, R. W., Trzesniewski, K. H., Noftle, E. E., Roberts, B. W., and Widaman, K. F., 2014, “Continuity and change in self-esteem during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6(3): 469-483.

Coopersmith, S., 1981,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Crocker, J., and Wolfe, C. T., 2001, “Contingencies of self-worth”, *Psychological Review*, 108: 593-623.

Elliot, M., 1996, "Impact of work, family, and welfare receipt on women's self-esteem in young adulthood",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9: 80-95.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Erol, R. Y., and Orth, U., 2011, "Self-esteem development from age 14 to 30 year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3): 607-619.

Epstein, S., 1979, "The ecological study of emotions in humans", in *Advances in the Study of Communication and Affect, Vol 5: Perception of Emotion in Self and Others*, edited by Pliner, K. R., Blankstein, K. R., and Spigel, I. M., New York: Plenum.

Harters, S., 1990, "Identity and self development", in *At the Threshold*, edited by Feldman, L. S., and Elliot, G.,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Hirsch, B., and DuBois, D., 1991, "Self-esteem in early adolescence: The identification and prediction of contrasting longitudinal trajector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 53-72.

James, W., 1892, *Psychology: The Briefer Course*, New York: Henry Holt.

Kinnunen, M., Feldt, T., Kinnunen, U., and Pulkkinen, L., 2008, "Self-esteem: An antecendent or a consequence of social support and psychosomatic symptoms? Cross-lagged associations in adulthood",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 333-347.

Kling, K. C., Hyde, J. S., Showers, C. J., and Buswell, B. N., 1999, "Gender differences in self-esteem", *Psychological Bulletin*, 125: 470-500.

Krause, N., 1987,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in an elderly population", *Psychology and Aging*, 2(4): 349-356.

Lazarus, R. S., and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Leary, M. R., and Baumeister, R. F., 2000, "The nature and function of self-esteem: Sociometer theory",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edited by Zana, M. 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McMullin, J. A., and Cairney, J., 2004, "Self-esteem and the intersection of age, class, and gender", *Journal of Aging Studies*, 18: 75-90.

Orth, U., and Robins, R. W., 2013, "Understanding the link between low self-esteem and depressio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2(6): 455 - 460.

Orth, U., Trzesniewski, K. H., and Robins, R. W., 2010, "Self-esteem development from young adulthood to old age: A cohort-sequential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8(4): 645-658.

Raudenbush, S. W. and Bryk, A. S.,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Sage.

Reitzes, D. C., Mutran, E. J., and Fernandez, M. E., 1996, "Does retirement hurt well-being? Factors influencing self-esteem and depression among retirees and workers", *The Gerontologist*, 36, 649-656.

Roberts, R. E., and Bengston, V. L., 1996, "Affective tied to parents in early adulthood and self-esteem across 20 year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9: 96-100.

Robins, R. W., Trzesniewski, K. H., Tracy, J. L., Gosling, S. D., and Potter, J., 2002, "Global self-esteem across the life span", *Psychology and Aging*, 17: 423-434.

Robins, R. W., and Trzesniewski, K. H., 2005, "Self-esteem development across the lifespa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3): 158-162.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Steiger, A. E., Allemand, M., Robins, R. W., and Fend, H. A., 2014, "Low and decreasing self-esteem during adolescence predict adult depression two decades lat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6(2): 325-338.

Trzesniewski, K. H., Robins, R. W., Roberts, B. W., and Caspi, A., 2004, "Personality and self-esteem development across the life span", in *Recent Advances in Psychology and Aging*, edited by Costa, P. T., and Siegler, I. C., Amsterdam: The Netherlands Elsevier Science.

Twenge, J. M. and Campbell, W. K., 2002, "Self-esteem and socioeconomic status: A meta-analytic review",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6, 59-71.

Zimmerman, M. A., Copeland, L. A., and Shope, J. T., 1997, "A longitudinal study of self-esteem: implications for adolescent develop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6(2): 117-141.

Wylie, R. C., 1979, *The Self-Concept Volume 2: Theory and Research on Selected Topics*,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Self-esteem Changes Among the Adults Across the Lifespan
: Examining the Predictors of the Change

Kim, Hyeme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Moon, Heyjin
(Seoul National University)
Chang, Haelim
(Seoul Jangsin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 of self-esteem from young adulthood to old age, as well as predictors of change in self-esteem over time. The eight waves of Korean Welfare Panel Data(KOWEPS) were used for analyses, and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15,511 individual aged 19 years and above were included. The multilevel growth curve model was specified to address the research questions. The result shows that the self-esteem trajectory differed across different age groups with those in early adulthood and adulthood showed an increasing linear trajectories while the old age showed a declining slope. Furthermore, predictors of changes in self-esteem also differed across the age groups that while depression and relationship variables were constant in predicting self-esteem change for all three age groups, some variables such as marital status, poverty status, and employment status predicted individuals in certain age groups. Such results demonstrate the need to understand and examine the change in self-esteem at the individual level.

Key words: Self-esteem, self-esteem trajectory, life span, time-varying variables, multilevel growth modeling

〔논문 접수일 : 14. 09. 30, 심사일 : 14. 10. 28. 게재 확정일 : 14. 12. 08〕